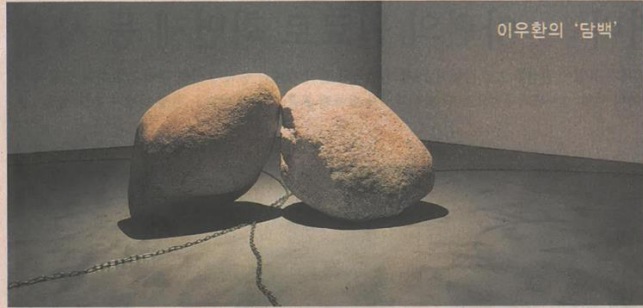


동서양 거장의 美, 동시에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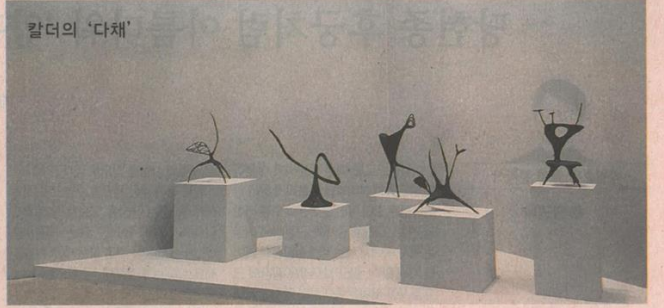
April 10, 2023 | 장재선 기자

Page 1 of 1



이우환의 '담백'

이우환의 신작 '관계항 - 키스(Relatum - The Kiss)'.



칼더의 '다채'

알렉산더 칼더의 청동 미니어처 작품.

동서양 거장의 美, 동시에 품다

이우환, 12년만에 국내 개인전 '모빌 창시' 칼더, 34개 작품 소개 내달 28일까지 국제갤러리서

서울에 비가 추적거렸던 지난 6일,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한 여성 관객이 직원에게 물었다. "저것도 작품 일부인가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붉은빛을 띠는 담쟁이덩굴이었다. 야외에 자리한 철제 판점 작품(이우환 작 'Relatum-Dwelling(A)')의 후벽에 있으니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냐는 궁금증이 들었던 것이다. 담쟁이는 작품과 무관한 것이었으나, 그 해프닝은 이우환(87) 작가의 예술 철학을 상기시켰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관계를 통해 그 무엇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라고 작가는 평소 말해왔다. 그러나 문명을 상징하는 철제 작품과 자연물의 우연한 조응을 살핀 작가는 웃음거리를 넘어 의미를 뿜 수도 있는 것이었다.

1980년대부터 미술 운동 '모노하(物派)'를 이끈 이우환은 자타 공인 세계적 작가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상설관이 있

고, 일본 나오시마섬과 프랑스 아틀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있다. 한국 경제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작품이 팔리는 작가이기도 하다.

국제갤러리가 이우환 개인전을 열면서 '모빌(Mobile)' 창시자인 조각 거장 알렉산더칼더(1898~1976)의 작품전을 병행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이다. "동서양 거장의 작품을 한 화면서 비교해 보는 재미를 주고 싶었습니다. 광주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기회가 많으니 우리 수준을 보여줄

자는 뜻도 있었지요."

지난 4일부터 5월 28일까지 동시에 열리는 이우환, 칼더 전은 공간 배치에선 '따로 또 같이'다. K1 건물에서 이우환, K3에선 칼더 작품을 볼 수 있다. K2는 1층에 칼더, 2층엔 이우환 작품을 전시했다.

이우환은 국내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조각 6점, 드로잉 4점을 선보인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에 대한 관심을 통해 물질의 존재, 관념과 실제, 주변과의 관계성 등을 성찰하는 모노하 예술의 경수를

만날 수 있다. 수십 년째 진화하고 있는 '관계항(Relatum)' 연작은 자연에 존재하는 돌과 문명을 상징하는 철의 만남으로 공간의 울림을 자아낸다. 시적(詩的) 여백과 활짝익 사색을 끌어내는 것이 그의 작품이다. 신작 '관계항-키스'는 두 개의 돌이 입을 맞추듯이 붙어 있고 이를 둘러싼 쇠사슬도 포개지는 모양이다. 때혹적인 형상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머무른다.

칼더 전은 모빌 대표작과 함께 브론즈 미니어처, 과슈화 등 34점을 소개한다. 그의 모빌은 날씨에 대한 감각의 변

화를 형상화('Roxbury Front')하는 등 이어가거리를 많이 갖고 있으나, 그걸 모르더라도 '움직이는 조각'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공기 순환에 따라 형형색색의 모빌이 반응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미술이 마술이 되는 순간이다.

공간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우환과 칼더는 닮았다. 그러나 작품 내용은 담백(淡泊)과 다채(多彩)로 나눠면서 동서양 예술의 차이를 보여준다. 전시 관람은 무료지만 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글·사진=장재선 선임기자